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열네 번째 주일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창조절기로 지킵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신임 부서지기 선임입니다.
4. 부서지기 모임이 공동의회 후 4시 30분에 시나이룸에서 있습니다.
5. 담임목사님께서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청년부에서 주최하는 사경회 주강사로 초청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함께 참석하여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9-20일(금,토) 저녁 7시@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8일 : 전해승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배형 / 설교번역: 이예슬
- 9월 안내 및 봉사: 코니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목자 모임 : 9월 21일, 예배후 4시 30분 @ 시나이룸

*성서일과 Lectionary (제 37주)

출 32:7-14 / 시 51:1-10 / 딤후 1:12-17 / 눅 15:1-10

교회세운날 2017.6.11

25-37

9월 14일 (성령강림 후 열네 번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23:1-3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임도영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5장 1-10절 — 인도자

설교 — 나는 참 포도나무다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Remember me

매년 봄과 가을 두 번, 노회 참석을 위해 시카고에 다녀옵니다. 처음 몇 번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는데 셔틀이며 비행기며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번 렌터카를 빌려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운전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생각도 정리하고, 소리내어 기도해도 방해 받지 않고, 심심하면 아내나 친구들과 통화도 하구요. 그럼에도 사슴을 친 사고 이후, 밤운전은 긴장이 됩니다. 노회가 적어도 화요일 오후 3시 넘어야 끝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밤 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위스콘신의 메디슨을 지나면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중 밤길 운전엔 사슴 트라우마까지 겹쳐 상당히 긴장하며 운전을 해야 했죠. 빗길에는 큰 트럭들 옆을 지나는 것도 적잖은 긴장을 줍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회 예배 시간, 성찬식에 빵과 잔을 나눌 때 틀어주시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Remember me” 라는 노래였습니다. “In the night in which our savior was betrayed” 로 시작되는 노래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부르짖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In my darkest hour will you remember me?” 이 가사가 생각나며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기억하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군요.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로체스터에 도착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치더군요. 이번 노회의 성찬식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터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 갈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가졌지요.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목회의 동역자들과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밤중 빗길 운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의 시간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 김대평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오랜 시간 기도와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어둠 속을 걷고 있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 터널에 끝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시편 107:29-30).”